

1. 서론

❖연구의 필요성

재난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socially constructed). 이는 **재난이 실제 발생한 상황이자 사건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해석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난이란 한 지역의 가용자원 이상의 인적, 물적 피해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며, 이로 인해 평상시의 사회 메커니즘이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발전과 글로벌화의 이면에 놓여있는 기후위기의 위험은 재난이 이제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며, COVID-19 팬데믹을 통해 재난의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밀접하게 연계되어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였다. 재난이 사회적인 속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재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우리의 한국 사회가 경험했듯 재난은 사회적 균열을 발생시키고, 기존 체계의 모순을 드러나게 만들어 위험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즉, **재난은 사회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재난의 해석과 의미 찾기가 이루어지고, 문화적 맥락에서 재난을 재해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난이 발생한 당시의 시점에서 재난을 이해하는 것과 재난 이후의 사회 변화 속에서 재난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재난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재해석하고, 재난을 통해 새로운 삶의 고찰을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의미 속에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 및 안전의 사회적 재구성**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재난을 표상화 할 수 있는 재난영화 그 중에서 상징적으로 영화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영화 포스터를 분석하여 재난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은 일상 속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직접 재난을 경험한 사람은 적지만 대부분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며, 영상 매체나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주관적 인지 구조가 변화되기도 한다. 그중 영화 포스터는 이러한 영화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광고 수단으로, 영화의 상징적 아이콘으로 활용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관객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 재난영화 116편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이 어떻게 영화 포스터를 통해 표상되고 상징화되어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되는 지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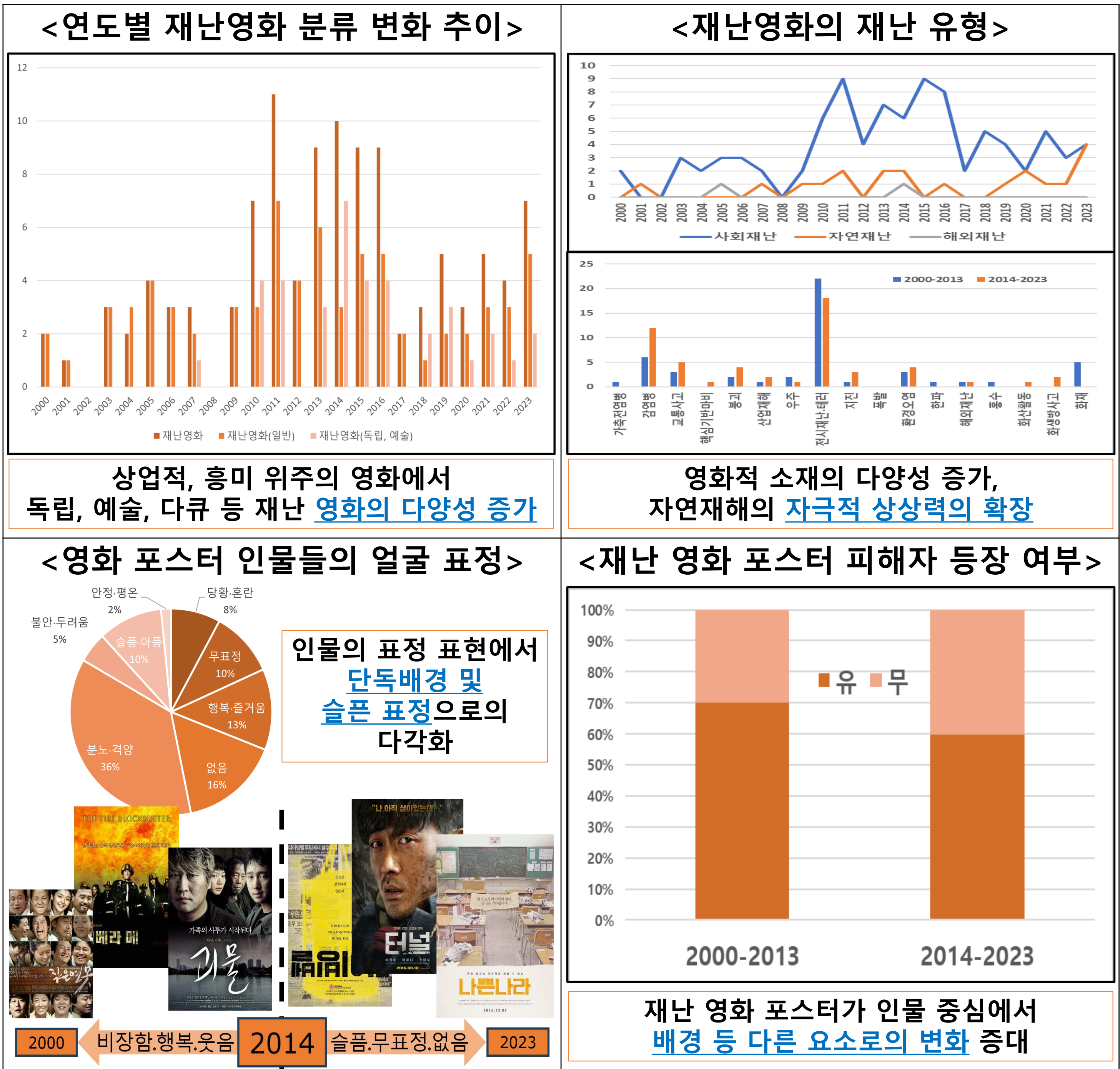
본 연구는 국내 재난영화 포스터의 분석을 통한 **재난의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 이후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의 전후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적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영화의 데이터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영화 포스터 및 영화 기본정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영화의 장르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2000년 이후 개봉 영화의 줄거리를 기반으로 재난이 등장하거나 재난을 주제로 한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영화 포스터에 대한 내용분석인 내러티브 분석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분석틀의 도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영화 및 영화 포스터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내러티브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 및 지표들을 목록화 하였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재난 영화에서 활용할 수 있거나, **영화의 사회적 표상을 정책화하는 연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영화 포스터 분석틀>

분류	세부 분류	분류	세부 분류
영화 정보	영화제목	포스터 특징	재난유형
	제목 속 재난 표현 여부		실화배경유무
	개봉연도		사람유무
	영화유형		사람수
	영화장르		남자수
	등급분류		여자수
	상영시간		주연유무
	누적관객수		주연의 유명도
	상영횟수		피해자 등장 유무
	제작사		인물의 표정
	제작 지원		무기소지여부
			글자유무
			글자수
			제목위치
			대표문구위치
			글자 내 재난 표기 유무
			배경의 재난 유무
			배경 내용
			삽화사용 유무

❖연구 내용

영화 및 영화 포스터의 간략한 추세 및 기초 분석을 살펴보면, 재난영화는 사회재난이 약 77%로 가장 많은 주제로 활용되었으며,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는데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영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상업영화, 블록버스터 영화 등 많은 제작비용과 인지도가 높은 유명 배우의 출연에서 독립 및 예술 영화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주연배우가 없거나 정부의 무능 등이 그려지는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영화의 스토리와 포스터의 관점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의미 등이 더 강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영화의 스토리와 포스터의 관점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의미 등이 더 강화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화 포스터에서 주인공의 표정에서는 비장함, 행복, 즐거움과 해피엔딩을 이끌어 나가는 영웅적 특성이 중심이었던 모습에서 점점 무표정하고 슬픈 모습 그리고 새드엔딩으로의 변화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난 영화 포스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인 의미가 재구성 되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3. 결론

❖결론 : 재난의 자극적 상상에서 현실적 아픔 공감으로의 표상

본 연구는 **재난영화 포스터 분석을 통해 재난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재해석되고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재난 영화는 상업적 소비와 흥미 중심의 소재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거나 직접 혹은 간접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영화에 대한 시선과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재난에 대한 인식,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지 변화, 시대적인 재난 및 안전, 환경, 기후 등에 대한 담론 변화를 담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화포스터는 영상매체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 혹은 더 강력한 사회적 표상과 기억을 남게 만들기도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존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첫째, **재난의 일상화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영화 그리고 영화 포스터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재난이나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영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영화 제작의 방향성, 문화와 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의 주도가 필요하며, 영화가 주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영화적 다양성이 사회적인 다양성과 실질적 관심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화에 대한 기억이 재난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사고와 허구적 진실의 괴리에 대한 관심과 영화적 구성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은 영화 포스터를 통해 그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기억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